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원효 연구 30년 외길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 나의 모든 의구심 원효에서 찾고있죠

1991년 <대승기신론소 · 별기>
2000년 <금강삼매경론>
2005년 <이장의> 역주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갈라진 세상. 마음마저 갈라져 삶은 거칠어져만 간다. 이 같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대안을 논할라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은 원효 스님이고, 화쟁사상이다. 하지만 원효 스님을 꼼꼼히 읽어낸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허무한 담론만 무성한 것은 아닐까.

말의 성찬에 등 돌리고 평생 묵묵히 원효 사상 연구에 몰두하며 1991년 <대승기신론소 · 별기(大乘起信論疏 · 別記)> 역주와 2000년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 이어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장의(二障義)>까지도 최근 완역하는 쾌거를 이룬 은정희(66) 前 서울교대 교수는 원효 스님을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이장의>는 원효 스님의 실천적인 불교관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핵심 저술 가운데 하나다.

은 교수는 1983년 박사논문에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삼세념(三細念)인 무명업식(無明業識) · 전식(轉識) · 현식(現識)이 아라야식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에 주목, 이를 드러내 <대승기신론>이 중관과 유식의 지양 · 종합이라는 설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번역에 몰두해 원효의 주요 저술을 세 권이나 번역해 냈으니, 그것만으로도 은 교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원효 저술은 당시의 제(諸) 학문을 넘나드는 자유로움과 웅대한 스케일, 그리고 함축적인 서술로 인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 교수의 업적은 더욱 더 빛을 발한다.

번역에 가장 애를 먹인 저술은 이번에 출간한 <이장의>다. 번뇌를 끊고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실천적 단계를 설명한 <이장의>는 유식사상이 집약돼 특히 어려웠다. <이장의>를 읽으며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은 교수는 "한 자 한 자가 암호 같았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하지만 일본의 오오초오 에니치(橫超慧日) 박사가 편찬한 <이장의>의 연구편에 나오는 전거(典據)를 하나씩 찾아 읽으며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몇 차례의 강독을 거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 결국 수년간의 작업 끝에 오오초오 박사가 찾지 못했던 전거들을 30여개 더 찾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각고의 노력으로 출간된 번역본 <이장의>는 높은 완성도로 학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번역은 없을 것이다"는 찬사까지 나오고 있다.

은 교수가 이처럼 '험난한' 번역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학자로서의 양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원효 스님의 원문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가 드물다보니 원효 스님에 대한 논문들도 자연 날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언어는 기초에 해당하는데 이를 등한시 하고 연구를 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학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은 교수에게 원효학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문제에 처음 눈뜬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성(古城)에서 범인을 찾던 탐정 조수가 거미줄이 잔뜩 걸려 있는 왕좌를 보며 "저기에 아름다운 왕비와 위엄 있는 왕이 앉아있었겠지"라고 되뇌는 <괴도 루팡>의 대목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줬다. "내 앞에 있는 책상보다 내가 더 먼저 없어지겠구나"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소녀는 두어 달 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거듭했다. 정답은 찾지 못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렇게 임시로 봉합됐던 문제의식은 1960년 조계사 일요법회에서 이기영 선생의 <금강삼매경론> 강의를 들으면서 원효 사상을 전공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발전했다.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 이기영 선생의 강의는 그에게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사에 대한 의구심을 원효 안에서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8년 후 은 교수는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 본격적인 원효 연구의 길로 접어들었다. 태동고전연구소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8년간 우직하게 한학을 익혔고, 김동화 · 이종익 교수 등 불교학 거장과 강독을 함께 하며 불교학을 배워나갔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강독은 난해한 불교 개념들을 풀어내는 값진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는 "나의 원효 저술 번역은 강독의 결실이다"고 말한다.

## 이기영 선생 강의 듣고 원효 연구 결심
## 대학원 시절 강독 통해 불교 개념 정리
## 이제야 '내 공부' 원효 저술 완역에 진력

지금도 <인명론(因明論)> <구사론(俱舍論)> <종경록(宗鏡錄)> <조론(肇論)> <예기(禮記)> 등 7개 고전 강독이 그의 동숭동 자택에서 이뤄진다. 덕분에 그의 집은 언제나 공부하는 이들로 문전성시다.

은 교수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30여 년간 한결같이 학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 신주련(92) 씨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컸다. 군산 동국사를 다녔던 어머니는 절에서 들은 말씀을 전해주곤 했다. 그 말씀들이 어찌나 귀에 쏙쏙 들어오던지 귀 기울여 듣곤 했단다.

불법과의 인연이 지중했던지 출가의 기회도 있었다. 성철 스님과 석남사 인홍 스님은 읽어보라며 책을 주기도 하고, 절에 함께 가자고도 하며 은 교수에게 출가 의사를 은근히 떠 보기도 했다. 은 교수 역시 출가할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공부할 여건이 갖춰져 있었고, 함께 공부하는 선후배도 많은 속세를 굳이 떠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다. 그래도 원효 스님을 화두삼아 정진하는 그를 두고 주위에서는 '유발비구니'라 부르니 반은 출가한 셈이다.

원효 스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은 교수는 주저 없이 '부주열반(不住涅槃)'을 꼽는다. "'열반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의 이 말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다른 표현입니다. 원효 스님은 줄곧 부주열반을 강조했지요. 원효 스님의 가장 큰 목표는 보살도의 실천이었음을 웅변하는 말입니다."

지난 해 8월 서울교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은 교수는 이제야말로 '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희색이 가득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효 저술을 번역할 계획이다. 자신이 세운 서원대로 원효 저술을 완역하고, 제자들과 한국불교사를 새로이 써나갈 생각이다. 그것이야말로 후학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은정희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1960)하고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서 <기신론 소 · 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으로 박사학위 취득.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임. 역서로는 <대승기신론소 · 별기> <금강삼매경론> <연산군일기>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원효의 삼세 · 아라야식설의 창안' 등이 있다.

몽골불교에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몽골국립공원에 노천대불조성을 위한 10만등 동참불사
(1인 1등 1만원 밝히기 운동)

1200명 몽골교포 가운데 목사, 전도사가 460명. 가족 600여명이 살고 있다면 이는 누구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몽골 포교사회의 현실입니다. 20여년전부터 의료전도사업과 학교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파고든 한국의 기독교는 2천년 몽골 정신사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2002년 대한불교진흥원 주관 아래 한몽불교문화원이 개설되고 금강선원 후원으로 몽골고려사가 창건되어 의료, 교육, 장학사업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460대 1의 눈물겨운 현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래 몽골 쟈이산국립공원에 황금부지 1만평을 확보하고 세계불교공원을 건설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하여 노천 부처님 한 분 조성하는 일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96세 구르도바 보취 라마 큰스님의 간절한 원력을 따라 몽골 고려사 주지 활안 한정섭 법사님께서는 1인 1등(1만원) 켜기 운동으로써 이 불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대화주가 되어 탁발행각에 나서게 되었으니 미래불교를 걱정하는 한국불자 여러분께서는 십시일반 동참하여 세계불교공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년 동안 소련 공산당에게 짓밟힌 몽골불교 부흥을 위해 몽골국립공원에 23m 노천대불을 세웁니다.

◆ 신청기간
◇ 1차 : 2005년 5월 20일 (음, 4월 18일) 까지 (몽골 부처님 오신날 행사일까지)
◇ 2차 : 2005년 7월 8일 (음, 6월 3일) 까지 (국립공원에 노천대불 낙성식일까지)
※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명단을 몽골불교공원에 기록하여 영원히 남깁니다

◆ 몽골세계불교공원추진위원회
• 몽골 불교대표 구르도바보취 • 몽골불교대학 총장 체대브 • 세계불교우의회 몽골대표 담마자브
• 아세아 불교 연구소장 볼칸 • 몽골대학생 불교연합회 남정주 • WFB몽골대표 담마자브
• 세계불교법왕청 대표 • 몽골 고려사 주지 활안 한정섭 • 석도림
•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 불사리탑 서울 포교당 법화정사

◆ 몽골성지순례안내
◇ 제1차 : 2005년 5월 20일 - 23일(음, 4월 13일) 3박 4일 110만원
◇ 제2차 : 2005년 7월 8일 - 11일(음, 6월 3일) 3박 4일 110만원

◆ 문의 및 접수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 1인 1등 1만원 계좌번호 : 우체국 010983-01-003730 (예금주 : 몽골고려촌후원회)
◆ 500등 이상 권선하시는 불자님께는 몽골정부 초청으로 3박 4일 왕복 항공료가 나옵니다.
◆ 몽골 불자들은 고려사와 구르도바보취 노스님 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국립공원 노천대불조성을 위한 10만등 동참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참자 명단-접수순)

● 서울 금강선원 : 이주연, 최정자, 김미진, 운 산, 안경우, 우 민, 명 덕, 신용진, 신방년, 지 오, 유권규, 이희경, 유종경, 유지희, 김동학, 안희숙, 김병희, 김영국, 망구경회, 망김학숙, 망구자근, JHONE, 구자원, 염종선, 염대현, 정순자, 민유미, 최아름, 최선관, 서은경, 최삼은, 김상현, 염민지, 김진궐, 이영자, 김현길, 김정길, 김난희, 조경희, 고세영, 허영철, 김순자, 신현정, 조영란, 이상배, 채명기, 서태수, 서종선, 서종남, 서진수, 지성희, 이봉문, 헤어포유미용실, 김향숙, 김고은, 김희도, 이진순, 이영기, 연규옥, 이진아, 이혜진, 정인환, 이순옥, 정영학, 오정록, 김덕경, 권세명, 박권제, 박성제, 박슬기, 민현덕, 김한영, 민대홍, 민석홍, 인선희, 윤미경, 민규영, 민정요, 전형태, 차은진, 전새힘, 전자임, 용재완, 고영철, 이유진, 김영진, 남미자, 김다솜, 김동한, 최용성, 최수영, 최정석, 박종성, 최영자, 박대원, 정희숙, 신일랑, 김창규, 박봉희, 김승익, 이종업, 권상철, 우제길, 전현자, 우현영, 우인경, 우지윤, 김용조, 김성열, 김재환, 박용철, 박준혁, 이석우, 이상용, 정해균, 정준영, 정치영, 정판석, 이규일, 이현미, 권혁수, 권순우, 이달용, 이용철, 한의길, 오정희, 한호철, 김세미, 한현지, 김유정, 이종하, 유지현, 여환수, 전승열, 여정훈, 여태경, 석근태, 석우제, 신윤식, 신상훈, 황윤태, 김동훈, 손관우, 조용호, 손복자, 조시영, 조은영, 조민경, 이상민, 이경자, 최성원, 문월운행 ● 여주불교대학 : 석노수, 박영자, 이임선, 석장윤, 석주현, 석성현, 김양순, 한미선, 석이영, 이부웅, 홍옥자, 이문기, 이훈기, 이종규, 이슬, 손해순, 장홍순, 박정자, 장동옥, 장동진, 장동우, 장보순, 이춘용, 장미희, 장동우, 장동화, 장화순, 여정순, 장윤미, 장승준, 장동인, 장관순, 손해순, 장홍순, 박정자, 장동옥, 장동진, 장동우, 장보순, 이춘용, 장미희, 장동우, 장동화, 여정순, 장윤미, 장승준, 장동민, 장관순, 한민수, 손정국, 이현희,이창열, 차민호, 김진희, 최영호, 김경찬, 오윤정, 홍보라, 유재식, 정두용, 권오철, 김영옥, 이희재, 구자하, 강혜옥, 최정락, 차혜주, 차윤탁, 짐재원, 손서연, 최지환, 송영수, 송민건, 송현아, 김봉순, 장해중, 김은예, 장윤구, 김종갑, 김태수, 김승수, 곽길석, 곽용호, 전순옥, 지상희, 박경순, 강정학, 강석훈, 장이순, 장동철, 이종일 ● 상락향수도원 : 김태성, 김일환, 최여종, 최순옥, 최금복, 이창규, 이정현, 최예지, 이이월, 윤여정, 윤여행, 윤여광, 윤충의, 양동국, 최순현, 양우미, 양현민, 정홍채, 박영자, 정준원, 정준오, 방수미, 정준영, 정진환, 정수민, 정연호, 정진아, 윤수홍, 정정자, 윤천주, 윤혜경, 윤현화, 김경태, 김태은, 김희정, 김지현, 이선희, 김만석, 김정욱, 이성윤, 홍영희, 이호근, 김석만, 이순관, 유성철, 신경호, 신용호, 신상호, 김지학, 김진기, 김선기, 유선준, 이종순, 유정식, 유원식, 이대훈, 박상관, 이민규, 유창구, 유병용, 김혁기, 김계순, 김진미, 김진아, 김진옥, 김진일, 김학돈, 황금순, 김자애심, 안병두영가, 이상곤, 이창회, 홍종희, 신재식, 정찬영, 차문준, 정석화, 차성빈, 함인식, 함성찬, 함영수, 김옥수, 문기중, 문선경, 김동기, 김옥례, 이두정, 김용명, 심현성, 최승열, 박경자, 이진순, 이상명, 정용재, 노회원, 박장연, 강태구, 서광식, 이홍복, 유동희, 김호준, 김장수, 오승희, 김미숙, 박미정, 최춘화, 홍승현, 김대희, 이재철, 김대수, 신재창, 이경길, 김민기, 이범찬, 김경선, 안동순, 김민정, 김광민, 홍란이, 이순자, 이선화, 이형승, 홍성우, 윤성현, 이영은, 윤해람, 이주원, 황윤기, 김정순, 권만섭, 안용주, 안용화, 박진화, 박덕규, 고일숙, 전혜경, 이용주, 황병국, 김경근, 김광재, 전영례, 양현석, 양승철, 이재영, 양재윤, 진석준, 장건선, 장용호, 장용진, 장민혁, 장순미, 이종순, 최보현, 유성철, 유아현, 윤숙경, 유성관, 강민아, 유시현, 김명숙, 유은영, 김덕봉, 손정아, 손형민, 심명희, 손창범, 장순환, 김진숙, 김동인, 최순창, 차갑선, 최은희, 최윤희, 한태현, 최해경, 한은주, 한진선, 한윤주, 정국용, 최수영, 최재원 ● 의정부 : 최점이, 법 성, 장현숙, 한상열, 정성문, 배진여성, 강순희, 허옥순, 김주남, 이순임, 현삼열, 신창섭, 이철대, 정진수, 이오재, 서병직, 이현호, 박선영, 이선각화, 최충섭, 방덕규, 김신욱, 방금옥, 박정민, 최연옥, 손수경심, 조정희, 이종현, 정인숙, 이강호, 김옥기, 현금자, 이대식, 황돌석, 임상혁, 최석기, 정두선, 한상용, 배양숙, 박귀임, 최남숙, 유진숙, 이수현, 박정자 ● 부산 천지암 : 복창현, 복상현, 박인섭, 전영우, 전인수, 안재우, 안혜리, 안상철, 정춘자, 강정묵, 강안묵, 강옥희, 장원일, 장원빈, 안성식, 박현우, 차성철, 윤혜영, 차지현, 차현순, 김옥련, 강국필, 전일성, 한민호, 류무광, 안수만, 안진영, 안진희, 김종환, 서영일, 서용호, 한상진, 최준호, 안원식, 전병철, 전상진, 전경련, 신인연, 정상영, 장왕규, 장진석, 강순례, 이미화, 박종길, 박정훈, 박정민, 복창현, 복상현, 박인섭, 전영우, 전인수, 안재우, 안혜리, 안상철, 정춘자, 강정묵, 강안묵, 강옥희, 장원일, 장원빈, 안성식, 박현우, 차성철, 윤혜영, 차지현, 차현순, 김옥련, 강국필, 전일성, 한민호, 류무광, 안수만, 안진영, 안진희, 김종환, 서영일, 서용호, 한상진, 최준호, 안원식, 전병철, 전상진, 전경련, 신인연, 정상영, 장왕규, 장진석, 강순례, 이미화, 박종길, 박정훈, 박정민 ● 안동 문수정사 : 김해림, 김좌동, 현창호, 김화라, 김영진, 김지선, 조경순, 권명자, 오형대, 신혜민, 신흥식, 임인동, 임경연, 윤경순, 이혜현, 이혜단, 이보현, 조후로, 장명숙, 김채선, 망최명자, 윤계영, 정지해, 배재호, 황성연, 임승수, 임예슬, 강송지, 강선옥, 어혜숙, 김승범, 문점석, 황해기, 황석진, 문형일, 오정석, 우미라, 권택상, 박혜수, 최문석, 강병성, 강종성, 강양중, 황의도, 이은우 ● 안동불교대학 : 최승봉, 최승철, 최동숙, 서수웅, 김춘자, 서영진, 하지윤, 박찬우, 서상진, 박상하, 임옥련, 권순석, 최한나, 권재현, 차상자, 박채순, 이민식, 권윤혜, 권차희, 김희옥, 김부동, 권종락, 김경희, 엄선영, 우옥자, 김금난, 김영택, 김경일, 서기원, 권옥이, 김석홍, 김용주, 김일동, 김주현, 김유선, 장정희, 임재선, 권정향, 임진현, 임관현, 임선현, 임전현, 임미현, 강진옥, 김동수, 이숙란, 이상우, 강성구, 권영애, 조수현, 김종훈, 김봉금, 김태민, 김태준, 이경숙, 정복희, 홍성혁, 김성길, 김영보, 김경동, 최민희, 최승익, 김경난, 권순혁, 이강호, 이형재, 이강영, 이동재, 권태우, 권기흡, 권오형, 권혁주, 이안정, 이인석, 이기석, 최선영, 류경수, 장영모, 방 온, 김태균, 김자일, 최경희, 심기성, 최도수, 김기동, 이무경, 최문헌, 최인헌, 장철환 ● 불교TV : 임현석, 김진한, 민병숙, 송영재, 이명희, 이해순, 신영숙, 임정훈, 임지혜, 김금선, 임기옥, 시복순, 김석영, 한기현, 강영미, 정영순, 이영숙, 변재옥, 최태근, 노윤구, 최동귀, 조인출 ● 울산신불사 : 곽만곤, 안인자. 곽윤규, 은수정, 이광식, 박옥동, 최문규, 권옥주, 유정옥, 김종성, 강순자, 김화곤, 김종필, 김종오, 김정래, 이택호, 강정애, 권선혜, 원용철, 박신재, 백장현, 백수연, 백삼용, 김태경, 이외선, 김민석, 김용순, 김동금, 김태훈, 서재윤, 서동일, 박순자, 최완규, 서미영, 김재봉, 서진영, 김석돌, 노상철, 정말숙, 장용하, 나상돈, 나상근, 강원석, 김정희, 나태순, 심치영, 김점례, 서정숙, 최선미, 김명선, 황선조, 김재곤, 이성호, 이태동, 강금수, 박심현, 장용성, 김영숙, 장희주, 장희진, 박말수, 이경미, 김준철, 원태옥, 김상훈, 윤성원, 윤명탁, 이태석, 이태봉, 장성칠, 장영진, 장기영, 장영주, 이영순, 조성호, 나희연, 정용훈, 김정선, 김효석, 김연순, 손추자, 손은혜, 이동춘, 이진옥, 이정락, 최진상, 최진열, 김성복, 김성열, 조주경, 박수만, 이선명, 이선용 ● 지장포교원 : 이봉신, 박춘옥, 이상구, 안기태, 장봉길, 이용운, 이종기, 김희익, 조병래, 김태영, 김인호, 정연보, 강상수, 김덕수, 이숙희, 김성락, 김종태, 최형동, 이복석, 박명현, 이채준, 이강웅, 최태규, 최병선, 정종귀, 박희문, 윤종호, 유한숙, 윤천수, 김희곤, 이가은, 김재중, 이현주, 김선빈, 문순자 ● 충북교육원 : 이현직, 조항식, 이호일, 김상무, 강전홍, 최재철, 전수자, 유승준, 윤흥진, 한준석, 임현목, 신학균, 김경달, 정진연, 이갑훈, 양병석, 김종만, 두현, 전희, 서원습

추가 명단은 다음주 광고에 게재합니다.